

매튜슨 성경 강의 이야기 1 - Gen1-3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David Mathewson 박사는 2011년 가을에 덴버 신학교로 돌아오기 전 8년 동안 Gordon College에서 신약 주제와 그리스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자가 되기 전에 그는 6년 반 동안 몬타나에서 목회 사역에 참여했으며 미네소타주 베미지에 있는 오크힐스 기독교 대학에서 수년간 가르쳤습니다. Dave는 스코틀랜드의 애버딘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논문은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Old Testament in Revelation 21.1-22.5, 그리고 최근에는 Verbal Aspect in the Book of Revelation(2010년 EJ Brill이 출판)라는 제목으로 셰필드 대학에서 출판되었습니다. . Dave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주제를 추적할 성경의 스토리라인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이요, 성전이요, 왕권이요, 땅이요 피조물이니라.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Dave Mathewson 박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성경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관찬은. 이 일련의 강의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성경의 줄거리라고 명명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은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책의 문학적 장르에 있어서 다양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동시에 성경은 다양한 종류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입증하는 통일된 이야기 또는 통일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의 페이지 전체에 걸쳐 펼쳐지고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첫 번째 강의의 대부분을 할 이야기의 설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설정, 주요 인물, 이야기의 지배적인 주제와 움직임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정은 갈등의 무대만 설정합니다.

대부분의 좋은 이야기에는 이야기 자체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위기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나 내러티브, 스토리 라인에서 촉발된 위기를 살펴보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위기나 갈등이 어떻게 풀리기 시작하고 주로 신약성서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뿐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도 성취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이 일련의 강의를 무엇인지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강의는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에는 많은 부분이 있으며 전체 책은

건너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주요 책의 주요 내용과 구조, 주제와 배경 설정에 대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순히 이야기를 추적하고 있으며 구약성서에서 발견된 더 중요한 본문과 그것이 이야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성서나 신약성서 전체에 대한 조사가 아닙니다. 또한 이 일련의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그 상황을 조사하면서 살펴볼 창세기의 내용과 같습니다. 창세기의 첫 장에서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가인과 아벨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습니까?와 같은 질문에 답할 준비나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주는 문자 그대로 7일이나 시대에 창조되었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신학적 주제나 신학적 스토리라인에 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향하는 곳입니다. 다시 한 번, 저는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본문을 살펴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이야기의 무대이자 배경이 되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점 또는 배경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 또는 요약을 제공하는 1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설정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며, 이야기의 모든 요소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대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일부로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엮어가는 모든 주요 주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배적인 주제들만 간단히 다루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반드시 순서대로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때로는 이러한 주제 중 일부를 분리하거나 분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는 스토리라인의 일부로서 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가지 주제만 다루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의 주권자로서 관계를 맺을 백성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단지 첫 번째 인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게 될 첫 번째 백성의 바로 시작, 즉 첫 백성입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용어는 또 다른 주제를 제기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창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언약 관계를 맺게 될 하나님의 최초의 백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실, 아담과 이브에 대한 명령, 즉 이 이야기와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자이신 창조 내에서의 그들의 주요 기능은 창세기 1장과 26절과 27절과 같은 본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이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땅의 모든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미지 뒤에 숨은 아이디어는 문화적, 신학적으로, 기능적으로 또는 존재론적으로 이미지가 수반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미지라는 아이디어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로서 그들은 창조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야 한다.

그리고 주로 그것은 그들이 모든 창조물을 지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이시며 이제 그분은 자신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들은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왕권과 그의 영광을 온 피조물 전체에 전파해야 합니다. 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주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통치와 영광을 모든 창조물 전체에 전파하는 그분의 대표자들입니다.

이것은 다음 지배적인 주제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그의 대리자로서 기능하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들은 창조된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영광을 확립하고 전파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섭정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섭정으로서 우리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28절,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암시하는 바는 다시 한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거나 다스린다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의 사명을 완수하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방법은 형상을 지닌 후손을 낳아 땅을 가득 채우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고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물 전체에 영광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합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통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지만, 창조 전체에 걸쳐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 그분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형상을 지닌 후손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영광이 결국 창조물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은 형상을 지닌 다른 후손들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그것은 또 다른 주제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주제입니다.

이것도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언약의 요소는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종주국으로 묘사되며,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축복하고 관계를 맺을 백성을 창조하고 선택하실 것이며, 이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도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을 주목하라.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축복의 장소이지만,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성취될 저주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식 자체는 여기에 없으며 언약이라는 용어도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창조의 종주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이제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그 편에 순종하면 그들을

축복하심으로써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관심이 없지만 단순히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규정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려면, 이 언약 관계의 일부에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저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구약성경 후반부에 나오는 모세 언약에서 발견되는 축복과 저주라는 주제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관계를 세우시고, 새로 지으신 백성인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사명을 완수하고, 언약의 종말을 지키게 된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고 동산 곧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이것은 우리를 다음 주제로 데려가는데, 그것은 땅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창조의 7일에 대한 다소 상세한 설명,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24시간이든 더 긴 시간이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요점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요점은 신학적으로 그것이 이야기의 설정과 시작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장과 2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단지 지구의 기원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구와 창조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에 그다지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지구, 지구의 기원, 그리고 이 설명이 어떻게 과학적 설명을 전혀 배제하지 않는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구의 기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적합한 땅이나 환경을 창조하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고 거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장과 2장의 땅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인류, 새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언약의 목적을 지키면 또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땅, 열매 맺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과 2장에 나오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로운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제 땅과 창조라는 주제와 연결하여 실제로 1장 1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개념이 다시 등장하고 중요한 강의 중 하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땅 창조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그것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장소이자

은혜로운 선물이 되는 땅, 즉 그의 백성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1장과 2장의 언급, 특히 2장에서 정원에 대한 언급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나중에 더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의 일부로 이 나무를 만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원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주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관찰을 구약의 존 월튼 교수와 다른 몇몇 교수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에덴동산이 묘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나머지 창조물, 특히 에덴동산이 신성한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실 곳이며, 아담과 하와의 역할은 그것을 지키고 지키는 것입니다. 2장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는 문구는 아담과 이브를 최초의 정원사 또는 최초 창조의 최초 조경사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들의 유일한 역할은 신성한 공간을

지키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나중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역할과 유사하므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의미에서 에덴동산의 첫 번째 제사장으로 기능합니다. 자, 후기 유대 문헌, 특히 우리가 나중에 구약성서에서 보게 될 내용은 제 생각에 구약성서는 성전, 즉 구약성서의 성전이 기본적으로 에덴동산의 축소형을 의미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거하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최초의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는 유대 문학이 많이 등장하며, 특히 일부 묵시문학에서는 에덴동산을 성전으로 묘사하고 아담을 성전에서 활동한 최초의 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제3에녹이라는 제목의 한 책에서는 에덴을 하나님의 쉼이나 영광의 광채가 동산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이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다른 언급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동산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신성한 공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지키고 지키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인데, 최초의 조경사로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성한 공간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신성한 공간을 돌볼 최초의 제사장으로서 존재합니다. 그의 사람들과 함께. 처음에는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성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해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성전과 명확하게 연결되는 여러 특징, 즉 여러 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발광체와 등불에 대한 언급은 성전 안에 있는 등대에서 나오는 빛을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의 성전에 있던 등잔대 자체도 아마도 나무를 연상케 할 것입니다. 등대는 나무, 아마도 에덴동산에 존재했던 생명나무를 닮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존 월튼(John Walton)에게 빚지고 있는 또 다른 관찰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 단지 하나님의 재창조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쳐서 필요하셨다는 사실의 표시도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엄격한 창조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쉬신다는 개념조차 성전 이미지와 공명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뒷부분, 역대기의 여러 곳, 이사야 66장에는 성전을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의 임재의 안식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그 자체에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다는 것은 이곳이 이제 신성한 공간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쉬시거나 거처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나중에 성전이라는 주제로 돌아올 때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리적으로 1장, 2장, 3장에서 특히 에덴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8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주목하십시오. 주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은 1장, 2장과 공존하므로 에덴동산은 모든 창조물을 포괄하는 것입니까? 에덴, 그리고 아마도 그 안에 있는 정원은 창조물 내에서 별개의 장소일까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묘사된 우주론이나 지리학의 종류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내가 이 관찰을 그레고리 빌(Gregory Beal)에게 빚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에덴 동산은 피조물 속의 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일 것이라고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이자 하나님의 멸망의 영광을 대표하는 아담과 이브의 주된 임무는 창조물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전파할 형상을 지닌 후손을 산출함으로써 아담과 이브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덴은 결국 온 땅과 온 세상을 포괄하게 되어, 에덴동산인 에덴은 결국 모든 창조세계와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대가 설정됩니다. 이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창조하신 땅이라는 은혜로운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요 대표자로서 그들은 주권자, 종주국,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의 통치와 왕권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들은 창조 세계 전체에 걸쳐 그분의 통치와 영광을 대표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하여 생육하고 땅을 가득 채울 것이며, 아마도 형상을 지닌 다른 후손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곳을 돌보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절정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롭게 그들에게 주신 창조 세계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은 어떤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의 나머지 부분의 주요 구분을 제공하는 갈등이나 복잡성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3장 다음에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와 구약과 신약의 나머지 부분을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나머지 부분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3장의 문제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규정,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 사탄은 그렇게 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가 하나님의 창조물 안으로 들어왔고, 죄는 이제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가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반영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가운데 그분의 통치와 영광을 모든 창조물 전체에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방해합니다. 이제 죄가 등장하여 그 의도를 좌절시키고, 이제 흥미롭게도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 추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용어를 사용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3장에서는 그들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24절에서는 창세기 3장 23절을 다시 읽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를 에덴동산에서 내보내어 그가 나온 땅을 갈게 하였느니라.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 그곳에서 쫓겨나거나 쫓겨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대표자로 기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온 피조물에게 전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언약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에덴동산과 그들이 지켜야 했던 신성한 공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쪽 입구에 두 그룹, 즉 두 천사를 두어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 이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에덴동산의 입구를 지키는 두 천사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과, 창조 이야기에서 그곳이 에덴동산의 동쪽이라는 지점, 즉 동쪽에 있다는 방향적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그러나 15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15절은 종종 복음의 초기 단계나 뉴스에서의 복음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15절과 16절, 특히 15절은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사이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네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칠 것이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결국 해결책을 찾을 갈등의 시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이상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이 시점의 내러티브는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정확히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성경의 나머지 부분, 즉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와 창조물 전체에 대한 원래의 의도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은혜롭게 마련하신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 곧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영광을 온 창조 세계에 전파하는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기능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3장에서 소개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자신의 원래 의도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로써 설정과 도입된 복잡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 특히 구약성서의 내용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명시된 대로 인류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이야기에서 주요 주제, 주요 본문, 주요 움직임만 다루 겠습니다 . 그리고 저는 건너뛰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모든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확립하거나 회복하는 하나님의 주된 수단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다루시는 거시적인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축소된 효과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물을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확립하는 수단으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국가에도 초점을 맞추실 것입니다.

또,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온 피조물 가운데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리고 너로 인해 땅 위의 모든 족속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창조의 본래 의도에 있었던 조건의 시작이다. 자,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자,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모든 주요 주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선택하신 것과 갈등과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나타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우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라, 아니면 네 본토 곧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백성에게 주시려는 뜻이 회복되는 초기 단계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땅을 자기 백성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축복의 장소,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곳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이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땅이다.

그 땅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그 땅과 그에게서 나올 이스라엘 민족으로 데려가는 것은 그의 창조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의 조건을 재확립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인류,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의 백성. 또한 언약이라는 주제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장과 창세기의 다음 장들에서 종주국, 즉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이제 그분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시기로 선택하실 것입니다. 12장 2절과 3절에서 이미 축복과 저주에 대한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의 후속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 분명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고 축복하시는 방식이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땅에 회복시키는 지배적인 방식이 된다는 언약의 주제를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원래의 창조 의도대로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머지 자손들과도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15장과 18장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분명히 15장입니다. 15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언약의 의식을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과 땅의 연관성, 즉 땅의 선물을 주목하십시오.

더욱이 그 의도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려는 의도에 주목하는데, 이는 12장에서 분명히 나타나지만 아브라함 이야기 전반에 걸쳐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저주의 반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3장의 끝은 하나님의 저주로 끝납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저주하시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이제 그 반전으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축복과 다시 축복의 장소인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에 주목하십시오. ,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려는 의도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백성, 나라가 생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 백성이 나올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죄로 인해 그들을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서 그 땅에서 안식을 주어 언약 관계를 맺게 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십니다. 온 땅에 세워지리라.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와 후손에 대한 강조도 주목하십시오. 하늘의 별보다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 많도다. 하나님은 다른 비유를 사용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 씨는 마지막에... 12장에서도 큰 나라가 그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22장과 17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자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며, 네가 내 말을 순종하였으므로 네 자손으로 인해 땅의 민족들이 스스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수많은 후손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명령을 반영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곳을 기억하세요. 하와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담과 하와가 형상을 지닌 후손을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온 땅을 가득 채우게 하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은 이제 많은 자손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소유하고, 되찾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로운 선물인 그 땅으로 회복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으로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고 그의 영광을 온 피조물에게 전하는 가운데 살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창조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 또는 첫 번째 단계로 간주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단지 그의 백성을 회복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망하고 타락으로 망한 창 1, 2장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분은 그들에게 축복의 장소, 그분의 임재의 장소인 땅을 은혜롭게 주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그분의 통치와 영광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분의 대표자로서 그분의 통치와 영광을 모든 피조물에 전파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로 가득 채우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주요 단계 중 하나일 뿐이며 이야기가 어떻게 풀리기 시작하고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저는 많은 양의 자료를 건너뛰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홍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6-9장의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과 온갖 공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인류를 회복시키시려는 그분의 의도를 재확인하고 계시지만, 이제 창세기 12장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시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구약의 모든 세부 사항이 이 스토리라인에 강제로 적용되거나 적합할 수 있다고 반드시 제안하고 싶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요 의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성경 이야기, 즉 자기 백성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주권자로서 그분의 초기 창조 활동에 반영된 그분의 원래 의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관한 성경 이야기의 지배적인 맥락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절정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원래 의도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중단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것과 모세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야기는 출애굽기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많은 자료를 건너뛰었지만 이야기의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도록 명령하시는 출애굽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서 인류가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그분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그분의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구약의 나머지 부분과 심지어 신약에서도 어떻게 진행되기 시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에 대한 그분의 의도를 회복하시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상기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새로운 반전 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새로운 단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실 일은 창세기 1장과 3장의 창조 이야기와 일체적이고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수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죄를 지었으므로 동산, 땅, 축복의 장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 신성한 공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 땅으로 데려가시려는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곳에서 그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약과 율법을 주시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수단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 그분은 큰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바로 모세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은 일종의 법적 수단이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제 시행되고 성취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야기와 언약뿐만 아니라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 어떻게

성취되고 지속되는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궁극적이며 궁극적인 것이 아니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지키고 성취하는 수단이자 성취입니다.

그는 성경 이야기의 첫 번째 강의인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이었습니다.